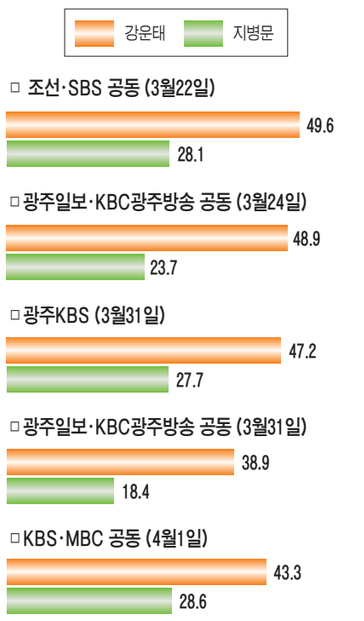
총선 D-6 격전지를 가다

“당연히 행정 달인” VS “그래도 민주 현역”

■남구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단위:%)



광주 남구

강운태, ‘대규모 정책 발표회’ 등 대세론 확산

지병문, 박재승·강금실 초빙…역전 발판 마련

무소속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병문 의원을 크게 앞서 나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 후보 측에서는 선거가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지지율 차이가 좁처럼 좁혀지지 않자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막판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도,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인물론’을 내세우는 상대 후보의 벽에 막혀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지 후보 측은 우선 종전까지 중점을 뒀던 ‘한나라당 견제론’을 접고, 대신 ‘진짜 일꾼론’을 내세우기로 했다.

또 단기처방으로 박재승 민주당 공심위원장과 강금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초빙, 남구 관내에서 지지유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지 후보 측 관계자는 “강력한 조직을 갖춘 강 후보에 맞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막판 세몰이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 측은 탄탄한 조직기반, 그리고 강 후보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지지율 격차를 벌여나가며 대세론을 확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우세가 확인됐지만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처럼 막판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최근엔 ‘전국 최다 득표’라는 새 목표까지 세웠다.

강 후보 측은 이를 위해 대규모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 지역민에게 미래비전을 설명하고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지식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지지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남구의 바닥 민심이 ‘인물론’으로 쏠리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대로만 간다면 승리를 낙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남구

후보	1번 지병문 통합민주당	2번 노영복 한나라당	6번 공석윤 평화통일가정당	7번 강도석 무소속	8번 강운태 무소속
나이	54세	65세	33세	53세	59세
학력	뉴욕주립대 정치학박사	조선대 대학원 이학박사	서울대 농산업교육학과	광주제일고	서울대 외교학과
경력	전남대 교수	조선대 부총장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중앙위원	광주시의원	내무부장관
직업	17대 국회의원	조선대 명예교수	정당인	정치인	정치인
재산	7억4천96만9천원	6억3천32만1천원	4천446만원	5억5천500만원	20억7천785만7천원
병역	미필(질병면제)	육군 중위	해군 병장	해군 하사	소집면제 (장기대기)
공약	-공직자윤리법 개정 -학술진흥법안 개정 -국민소환제법 제정 -아시아문화산업펀드 조성	-교육, 의료복지, 관광특구 조성 -전국 최대 실버문화산업단지 조성 -내륙항(송촌항) 개발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선거제도 개편통한 공의정치 실현 -소외계층에 실질적 복지 정책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공교육비 정부부담률 GDP 6%로 확대 -여성고용지원 네트워크 구축	-한류문화산업 단지 조성 -한국음식문화 타운 조성 -노인건강타운 조성 -교육특구지정

▲쟁점 및 현안=남구의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이다.

이번 총선 후보들 사이에선 백운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문제는 고가도로 철거 후 우회도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는 것이다.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뜨거운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백운광장 인근 홈플러스 건립문제와 남구청사 이전 또는 존치문제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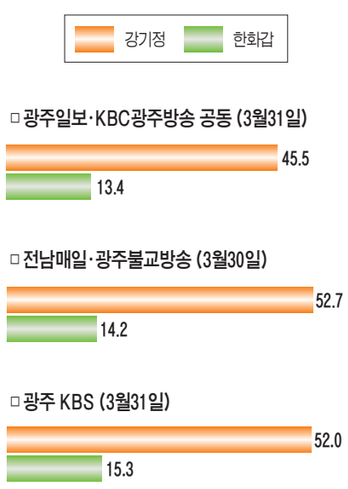
남구는 빈약한 재정 형편상 자체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국책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만큼, 대규모 현안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자립형 노인건강센터인 ‘효자촌’ 조성사업이 용역단계에 있으며, 남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한류문화산업단지’나 ‘실버산업단지’ 등도 추진 중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힌 돌’ VS ‘굴러온 돌’ DJ 영향력 변수

■북구갑 최근 여론조사 결과 (단위:%)



광주 북갑

강기정 “공천혈전 통과…거물급 도약 계기될 것”

한화갑 “부동층·보수층 결집…막판 역전극 자신”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12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친 강기정 의원의 ‘무혈입성’이 점쳐졌지만, 후보등록 마감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선거 판세가 급변했다.

‘리틀 DJ’라 불리는 한 전 대표가 전국적인 지지도와 압도적인 중량감을 기반으로 ‘박힌 돌’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강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제물 삼아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재로선 ‘격전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강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본보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지지율을 확보, 13.4%를 얻은데 그친 한 후보를 크게 앞섰다. 광주KBS 등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강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그러나 부동층이 30%가 넘어 판세가 극히 유동적인데다, 지역민들을 상대로 한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보수 성향을 지닌 유권자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막판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후보 간 정책 대결도 그만큼 치열하다.

강 후보는 “노후화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해 지역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한 후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종합물류정보망을 확충하는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5·18 국립묘지와 가사문화권을 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 이가연 한나라당 후보와 이봉훈 민주노동당 후보, 최한규 평화통일가정당 후보와 김경진 무소속 후보도 바닥민심을 다지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북구 갑

후보	1번 강기정 통합민주당	2번 이가연 한나라당	4번 이봉훈 민주노동당	6번 최한규 평화통일가정당	7번 김경진 무소속	8번 한화갑 무소속
나이	43세	55세	35세	49세	41세	69세
학력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전남대 행적학과 졸업	조선대 기계공학과 졸업	단국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경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전 민주노동당 중앙당 조직국장	선문대 초빙교수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2005년 민주당 대표
직업	국회의원	정당인	정당인	정당인	변호사	정치인
재산	2억2천800만원	7억300만원	9천300만원	2억7천900만원	3억5천600만원	5억2천300만원
병역	미필(수형)	육군 병장	육군 병장	육군 일병 (소집해제)	육군 중위	미필(고령)
공약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유치 -각화동 농산물시장 현대화	-광주역 지하차도 개설 -말바우 시장 현대화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국가책임후불제 -대형마트 규제 및 현지법인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 대출 확대 및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낙후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지하철 2호선 건설	-주거·물류, 영어마을 추진 -등록금 분납·연기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인력활용분담금 제도	-호남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북구 벤처타운 설립 유치 -북구 가사문화권, 5·18국립묘지 등 관광단지 개발

▲쟁점 및 현안=광주 북구갑 지역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우산동·두암3동을 비롯, 문화동 등에 저소득층이 많다. 전체 유권자 14만1천여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만 5.9%(8천352명)에 달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어떻게 이들의 눈과 귀를 돌릴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교도소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까,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생각해 동교동계 후보를 선택할 지도 막판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